



북방지향과 남방지향

시모가와 마사하루
〈마이니찌신문 서울지국장〉

서 울거리를 걸으며 한국여성의 얼굴에는 몇가지의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日本여성보다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다.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의외라고 생각한 것은 가끔 필리핀과 같은 남방계의 얼굴과 비슷한 여성을 본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북방계인데, 어찌된 일일까?」라는 소박한 의문이 생겼다. 최근 서울에는 필리핀등 동남 아시아에서 일하러 온 여성들이 늘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여성은 틀림없는 한국여성이다.

지난달, 만난 서울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K교수에게 그런 의문을 던졌더니 K교수는 『예리한 관찰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한국에는 옛날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혼재했다. 여성의 얼굴에 남방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히 이조 이후, 북방문화가 전체를 제압하여 남방문화의 영향은 문혀버렸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K교수는 한국에 있어서의 남방문화의 상징으로서 제주도의 석인상, 돌하루방을 들었다.

확실히 제주도에 가면, 많은 일본인은 그곳에서 日本 최남단의 오키나와(沖縄)와의 유사성을 느낀다. 돌로 만든 낮은 집들, 아열대성식물, 그리고 고온다습의 기후.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광용 캐치프레이즈이지만 문화적으로 오키나와의 유사성에 흥미를 느꼈다. 이것을 연구하면 한국에 있어서의 남방문화의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東京여자대학의 池明觀교수

(前「思想界」주간)가 日本에서 출판한 저서 「저고리와 갑옷」(1988년刊)을 보게 되었다.

池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는 북쪽에서 전해졌다는 설이 압도적이었다. 그에 대해 나는 고대한국에는 남방에서 온 문화의 흐름이 꽤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사」라는名著를 출판한 池교수도, 당시에 한국에 있어서의 남방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池교수는 자신의 저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국내의 북방문화 편중무드를 경고하고, 남방문화의 영향을 고찰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북방에 대한 관심에 비해 남방에 대해선 관심이 적다는 사실은 池교수의 지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가 이와같은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신문사 특파원으로서 찾고 있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북방지향」「남방지향」의 교차는 한국의 현대적 테마다.

작년 가을 北京에서 열린 아시아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나는 서울에서 北京으로의 직행 비행기에 올랐다. 他社의 특파원은 東京, 홍콩경유로 北京으로 향했다. 서울-北京간을 직행으로 가고 싶었던 나는, 며칠간의 로비활동 끝에 외국인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아시아 대회용 전세기를 탈 수 있었다. 그 보람은 있었다.

서울 金浦공항에서 출발한 KAL기는 일단 機首를 서쪽으로 돌려 서해안 상공으로 향했다. 그리고 북상을 시작하여, 이윽고 中國의 旅大市 상공으로, 여기에서

또 機首를 서쪽으로 돌려 天津市 상공을 거쳐 北京 국제공항으로 착륙한 것은 金浦를 출발하여 겨우 한시간 반후였다. 「北京이 이렇게 가까웠다니」 탄성을 지르며 놀라는 한국인 기자들의 그때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만한 地勢上的 포인트에 있다」고 그때 생각했다. 北京까지 한시간 반, 東京까지 두시간 반, 소련의 하바로프스크까지의 직항로가 개설되면 그것도 세시간 내에 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동아시아의 「북과 남의 교차점」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방」으로의 관심에 비해 「남방」으로의 관심은, 아직 민간레벨은 아니다.

서울-北京간 직행편이 실현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盧泰愚 대통령의 취임후 전개된 북방외교 덕분이다. 북방외교는, 美國·日本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어 온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한층 높이며, 다각화하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

「북방외교」의 반대말은 「남방외교」다. 그러나, 한국에 「남방외교」라는 말은 없다. 「남방외교」라는 단어가 매스컴에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아시아의 여러나라에 접근하기 시작한 北韓에 대해서이다. 「북방외교」 「남방외교」라는 말에 상표등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 있어서 약간 유감이다.

「남방외교」대신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동의어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의 한국」이다. 盧泰愚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美國 스탠퍼드대학에서의 강연에서 다시 한번 이 말에 힘을 주며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각료회의(APEC)의 의의를 강조했다.

북방외교를 추진해온 한국정부의 수뇌부의 흥중에는 옛날 中國의 북동부에서 한반도에 걸쳐 존재했던 고조선의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방외교는 한국인의 「북방에 대한 향수」와 잘 어울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남방으로의 관심은 적다. 「아시아·태평양」으로의 관심도 정치, 경제적레벨에 국한되어 있고, 문화면의 언급은 그다지 볼 수가 없다.

신문사의 특파원 배치를 보아도, 모스크바와 北京으

로의 상주 특파원 파견의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동남아시아諸國연합(ASEAN)의 중핵도시인 방콕에 지국을 개설한다는 구상은 들은 적이 없다. 단지 연합통신만이 방콕에 지국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정보의 충분한 수집면에서 볼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아닐까.

한국은 이미 「경제대국」(부시 美國대통령의 盧대통령 환영 인사)이라 불리우는 존재가 되었다. 시장개방의 압력이 몰려오고 있다. 국제사회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시기가 이미 왔다.

7.7선언 이후의 「북방외교」도,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에 의해 큰 고비를 넘겼다. 그것은, 盧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서 「북방외교」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대신 「통일외교」라는 新語가 등장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통일외교를 지탱하는 힘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인 한국」이라는 인식이 이번 盧대통령 방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야기가 딱딱해졌다. 이와같이 내가 「북방」 「남방」에 구애받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북방중시」에 대한 조바심에 기인한 듯하다.

일반 한국인은 일본인을, 원래 한반도 남쪽의 열도에 있는 야만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대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와서 『日本에는 아직 남녀혼욕의 풍습이 있습니까?』라는 경시하는 듯한, 또 흥미롭다는 듯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몇 수 십번 같은 질문을...

남녀혼욕을 둘러싼 질문에 지쳐 있던 나는, K교수한테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도 옛날에는 남녀혼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中國의 유교문화가 침투하여 없어졌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池교수의 저서에도 있었다. 「신라때는 族內婚과 近親婚이 있어 형제 자매간에 결혼하여 남자는 왕이 되어 정치권력을 갖고 여자는 왕비가 되어 주술사로서 종교적인 행사를 지냈다. 이것은 오끼나와에서도 日本의 고대에서도 같다」(저고리와 갑옷)

신라=남방문화, 라는 설이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을 민법으로 금지한 현대 한국의 문화적측면에서 볼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도 의외로 한국과 남방문화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